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기후위기대응, 도시계획 및 전통시장 관련

# 2023 의원 공무국외 연수 보고서

2023.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목 차

---

|                            |    |
|----------------------------|----|
| I. 연수 개요 .....             | 3  |
| II. 연수 내용 .....            | 5  |
| 1. 라데팡스 개발청 .....          | 7  |
| 2. 도심옥상형 유리온실 농장 .....     | 12 |
| 3. 알카라 데 에나레스 시청 시의회 ..... | 17 |
| 4. 람블라거리와 라 보케리아 시장 .....  | 20 |
| 5. 가우디 성당 등 .....          | 24 |
| 6. 유럽 자전거 정책 관련 .....      | 28 |
| III. 연수 소감문 .....          | 35 |

# - 기후위기 대응, 도시계획 및 전통시장 관련 - 2023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연수 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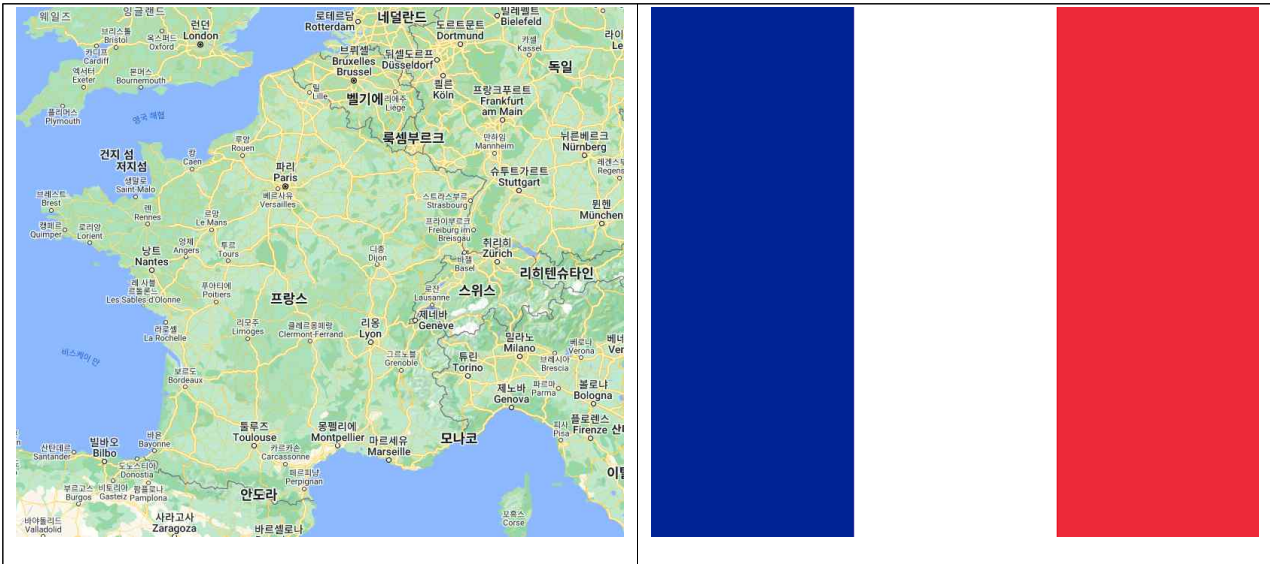
## I 개 요

- 출장목적 : 기후위기 등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 서구 탄소 중립 계획이 마무리 되기 전에 선진 사례를 견학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도시계획 및 전통시장 상생방안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하기 위함
- 기 간 : 2023. 3. 30.(목) ~ 4. 7.(금) [7박9일]
- 출장국가
  - 프랑스(파리), 스페인(마드리드, 톨레도, 바르셀로나)
- 출장인원 : 16명(의원 11, 직원 5)
  - 의 원 : 고경애, 김수영, 백종한, 오광록, 전승일, 윤정민, 임성화, 안형주, 김형미, 오미섭, 김균호
  - 직 원 : 정은화, 이성숙, 김희수, 문정수, 서지우
- 주요내용
  - 유럽 도시개발의 대명사로 불리는 파리 라데팡스 개발청을 방문, 친환경을 기반으로한 도시개발 사례 및 발전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견학
  - 건물 옥상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농장으로 흙을 사용하지 않으며 물을 적게 사용하는 농법 견학
  -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시 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 견학 및 상호 교류
  - 쇼핑몰과 전통시장의 상생방안 견학

○ 주요일정

| 일자                 | 지역         | 시간                        | 일정   |
|--------------------|------------|---------------------------|--|
| 제1일<br>3/30<br>(목) | 인천<br>파리   | 10:00<br>18:00            | - 인천공항 집합 후 수속<br>- 파리 도착 후 숙소로 이동                     |
| 제2일<br>3/31<br>(금) | 파리         | 09:00<br>~<br>18:00       | - 라데팡스 개발청 (EPAD) 방문                                   |
| 제3일<br>4/1<br>(토)  | 파리         | 09:00<br>~<br>18:00       | - Nature Urbaine (도심 옥상형 유리온실 농장) 방문                   |
| 제4일<br>4/2<br>(일)  | 파리<br>마드리드 | 09:00<br>~<br>18:00       | - 프랑스(파리)에서 스페인(마드리드)로 이동                              |
| 제5일<br>4/3<br>(월)  | 톨레도        | 09:00<br>~<br>18:00       | -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톨레도 시 방문 및 견학                   |
| 제6일<br>4/4<br>(화)  | 마드리드       | 09:00<br>~<br>18:00       | - 알칼라 데 예나레스 시청 및 의회 방문                                |
| 제7일<br>4/5<br>(수)  | 바르셀로나      | 09:00<br>~<br>18:00       | - 마드리에서 바르셀로나로 이동<br>- 바르셀로나 람블라 스트리트, 라 보케리아 전통 시장 방문 |
| 제8일<br>4/6<br>(목)  | 바르셀로나      | 09:00<br>~ 14:00<br>16:00 | - 바르셀로나 가우디 성당, 구엘공원 등 방문<br>- 바르셀로나 공항으로 이동           |
| 제9일<br>4/7<br>(금)  | 인천         | 17:00                     | - 인천 도착  |

□ 프랑스



- 수도 : 파리
- 인구 : 약 6,358만명(2006년 추정치)
- 면적 : 551,602km<sup>2</sup> (한반도의 2.5배)
- 주요도시 : 리옹(Lyon), 마르세이유(Marseille), 보르도(Bordeaux)
- 주요민족 : 골족(Gaul)
- 주요언어 : 불어
- 종교 : 카톨릭(82%)
- 기후 : 기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서양 연안은 해양성, 알프스지방은 겨울이 긴 대륙성, 마르세유 등은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다. 우리나라의 4계절과 시기가 비슷하며 가을에 비가 많이 오는 편이다.

## □ 스페인(Spain)



- 수도 : 마드리드 (북위 40.26°, 서경 3.42°)
- 면적 : 505,990km<sup>2</sup> (한반도의 약 2.3배)
- 인구 : 4,735만명(2020)
- 민족 : 스페인인(86%), 모로코인(2%), 루마니아인(1%) 등
- 종교 : 가톨릭(61%), 기타종교(1.8%)
- 언어 : 스페인어(카스티야어); 지역별 카탈루냐어, 바스크어, 갈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
- 기후 : 대부분의 지역에서 4계절이 뚜렷하고 동남부 해안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북서부 해안 지역은 해양성 기후, 내륙고원 지역은 대륙성 기후를 보이며, 카나리아 군도는 아열대성 기후로 연중 온난건조. 봄·가을 : 8~21℃, 여름 : 25~45℃, 겨울 : 0~12℃

### III 주요 활동 내용

#### 【참고】

연수 내용은 현지에서 파악한 자료로서 방문기관 안내책자, 관계자 브리핑과 현지 통역사의 주민면담, 현지도서자료, 현장조사 등으로 수집한 것임.

## 1. 라데팡스(오미섭, 김균호의원)

- 방문일시 : 2023.03.31.
- 면담자 : 도시개발청 홍보실 팀장 IULIA
- 주요내용 : 라데팡스 핵심사업 및 미래비전과 역할 소개
  - 프랑스 파리 중심가인 루브르 박물관과 개선문을 중심축으로 도심에서 8km 지점 센 강변에 조성된 부도심에 해당
  - 1958년 이후 파리 도심지역의 인구분산, 새로운 업무시설 공간 확보, 국제업무지구 조성 등을 목적조성
  - 프랑스 정부와 파리 당국 등 자치단체로 구성된 라데팡스 개발 위원회가 1958년부터 30여년에 장기 개발 청사진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대 대부분의 공사 완료되었지만 기후위기 관련 등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현재도 진행중임.
  - 업무, 상업, 주거, 문화 등의 다기능 복합개발도시의 대표적인 성공적 사례에 해당
- 라데팡스 개발 성과
  - 입체교통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공간활용도 및 교통효율 극대화 : 비즈니스 지역에 대한 복층도시구조 마련(도로·지하철·주차장

- 등 모든 교통관련시설은 아래층 지하에 설치, 그 위는 건축물  
여유공간 등 조성)
- 파리 도심지역과의 연결망 확대를 통한 도심문제 해결
    - : 고속도로(A14), 메트로 1번선, 고속철도(RER), 국철(SNCF)을 비  
롯한 18개 버스노선을 통해 파리 도심과 연계성을 강화함으로  
써, 파리 도심의 교통문제, 주거문제, 환경문제, 상업건물 부족  
등을 상당부분 해소
  - 동(東)-서(西) 연계를 통한 역사성과 예술성의 조화
    - : 파리 동쪽의 루브르(Louvre)에서 시작하여, 샹젤리제  
(Champs-Elysees), 개선문으로 연결되는 역사축 상의 서쪽에  
라데팡스 위치
    - : 동쪽 지역의 역사적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대적이고  
창조적인 신규 건축물 조성
  - 경제·문화 중심의 다기능 복합개발도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 신도심의 환승시스템이 특히 발달되어 있고 다기능 복합 개발 도시  
역할을 함
  - 기후위기 관련 친환경도시와의 연관성을 고민하고 향후 사업 개발중
  -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전거 타고 샤워까지 할  
수 있는 원스탑 서비스 제공
  - 도심 근방에 녹지대 조성 늘릴 예정, 2028년 까지 진행 될 것임.
  - 즐거움과 쾌적한 공간 제공하고 있음

예) 매년 크리스마스 시장 크게 열리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좋음

- 라데팡스의 상징물인 제2개선문(그란데 아르슈, Grande Arche)은 그 상징성과 함께 시민들이 자주 찾는 등 인기있는 건축물임

**[EPADESA의 관리구역]**



○ 총평 및 구정 활용방안

- 파리 도심지역과의 연결망 확대로 파리 도심의 교통, 주거, 환경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학생수가 증가하는 좋은 성과를 내는 등 복합개발도시의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됨
- 특히 지역의 역사적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대적이고 창조적인 신규 건축물 조성이 잘되어 있음
- 우리 구도 새로운 지역을 계획 및 개발 할 때 기존 유적과 문화재 등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지역을 개발한다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

하는 도시를 만들어, 머물고 싶은 도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지금의 도시는 과거와 현재가 뒤죽박죽이면서 복잡하여, 역사와 추억을 상징할 수 있는 오래된 문화유적들을 찾아보기 어려움
- 구도심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 신도심으로 라데팡스를 따로 계획한 파리 시민들과 프랑스 정부의 해안을 높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를 지하화하여 지상에는 자동차들이 없이 넓은 공간을 공원처럼 만들어, 보행자 및 관광객들이 위험없이 다닐 수 있게 되는 도심 개발이 필요하며 창의적인 건축학도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도심 개발의 장이 필요함

## 주요 질의 및 답변

|     |   |
|-----|---|
| 질의1 | ○ 라데팡스라는 신도시 건설 목적이 무엇인지  |
| 답변) | ○ 파리의 인구가 늘고, 신도시 요구가 커져갔지만 문화 유적 및 유산이 있는 파리 구도심을 재개발할 수 없어 신도시를 계획 건설하게 됨           |
| 질의2 | ○ 라데팡스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지  |
| 답변) | ○ 라데팡스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이 발전함, 상업지역인 라데팡스에 주민들이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버스와 지하철이 라데팡스를 거쳐가게 설계함 |
| 질의3 | ○ 향후 라데팡스의 계획은 어떠한지   |
| 답변) | ○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라데팡스에서도 앞으로 개발은 기후위기 대응과 접목하여 녹지공간 확보 등 친환경적 공간으로 개발할 예정   |



## 2. 도심 옥상형 유리온실 농장(전승일, 임성화의의원)

- 방문일시 : 2023.04.01.(토)
- 면 담 자 : 플뢰르 Nature Urbaine(도심 옥상형 유리온실 농장) 실무 담당자
- 주요내용 :
  - NU-Paris는 파리 엑스포의 Pavillon 6 - Porte de Versailles의 옥상에 자리 잡은 대규모 도시 농업의 선구적인 형태로 설계, 1만 4000㎡(4235평) 규모의 농장으로 도시농업에 특화된 두 민간회사가 힘을 합쳐 만들어짐.
  - 현재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에서 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재배는 토양을 쓰지 않는 에어로포닉(분무식 수경재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에어로포닉은 수경재배의 하나로 배양액을 작물의 뿌리에 분무해 산소와 양분을 공급하는 재배방법임.
  - 2020년 시작된 NU-Paris는 식용 식물의 수직 도시 농장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농장에서 생산된 작물(과일, 야채 등)은 그 농장이 있는 빌딩의 술집과 식당을 포함해 그 지역 로컬 식당에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음. 즉, 재배된 농산물은 농장 근처 호텔이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업, 레스토랑에 공급되며, 일반 소비자들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음.
  - Nature Urbaine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농장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뛰어난 맛을 지닌 제철 제품을 재배하여 단기간에 유통, 에어룸 토마토, 딸기, 녹두, 상추, 어린 새싹, 무, 근대, 오이, 산딸기 및 많은 향기로운 식물 등 30가지 이상의 종이 재배되고 있음.

- 농장은 두 가지 농사 방법을 사용하는데, 두 개 모두 흙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하나의 방법은 식물의 뿌리를 물에 넣은채 기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뿌리를 공중에 두고 식물을 기르며, 그들에게 물을 뿌리는 기법임. 두 방법 모두 전통적인 농사보다 물을 90% 적게 사용되는 이점을 갖음.
- 현지 주민들도 농장의 135개의 1제곱미터 땅 중 하나를 빌리면 자신의 음식을 직접 기를 수 있음. 또한 농장은 방문객에게도 개방되어 있으며 특별 행사에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
- 수익 구조는 텃밭 분양, 작물 재배, (체험)교육, 특별행사 등으로 발생되며, 아이들의 교육적 활용 가치에 방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교육 부분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 파리 내 사용되지 않는 공간들을 도시 농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도시의 음식 섭취량의 최대 10%까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사진 :





○ 총평 및 구정 활용방안 (전승일, 임성화 의원)

[도심 옥상형 온실농장 적용방안 모색]

-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농장을 선도적으로 운영, 생산성이 높으면서도 지속가능한 농업의 모델을 만들어가 있음. 특별히 재배된 농산물은 농장 근처 호텔이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업, 레스토랑에 공급되며, 일반 소비자들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유통 구조를 갖춤. 옥상에 재배된 작물을 통해 도시의 열섬효과는 물론, 사람들에게 로컬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광주 서구의 경우,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한 새로운 재배 형태 접목 필요, 특히 유휴 공간인 '도심 옥상'을 활용한 온실농장에 대한 사례는 유의미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식량 무기화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도심 옥상을 활용한 식량자급률 제고 사례는 그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선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식량자급률 44.4%)
-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김대중컨벤션 센터가 있으나 옥상 형태가 상이해 적용에 한계가 있음. 대형 건물 옥상이 부재한 서구의 상황을 고려, 도심 속 가로변 띠녹지 화단 조성,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텃밭 나눔, 마을 공동체 정원이 필요. 특히 주민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과 생활 속 녹지공간의 재생으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서구 구정 정책으로 <함께정원> 사업을 제안함.
- <함께정원> 사업은 단순히 꽃과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마을의 스토리를 담아 주민 스스로가 기획한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조성)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자원 순환경 제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지역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도심 속 오아시스로서 구 18개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공공 어린이집, 광장 등 지역의 특성과 주민 맞춤형 텃밭상자 분양을 통해 특색있는 도시녹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관리하는 현장 중심형 교육이 가능, 넛지효과를 통한 긍정적인 시민의식 변화로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 체류형 관광과 경제 활성화,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거점동에 대한 시범사업 검토 필요)

### 3. 알카라 데 에나레스 시 의회 (오광록, 백종한 의원)

○ 방문일시 : 2023. 4. 4.(화)

○ 면 담 자 : 마리아 아랑구렌(제 3 부시장)

○ 주요내용

- 스페인 행정은 크게 중앙행정, 지방행정으로 구분됨. 광역지자체 주, 중역지자체 도, 기초 지자체 시로 구분됨. 현재 광역지자체는 17개 자치주와 해외에 있는 2개 자치시를 포함하여 19개이며, 중역지자체는 50개 도와 해외에 있는 2개 자치시를 포함하여 52개, 기초지자체는 8,097개의 시가 있으며, 각 도별로 자치수도를 두고 있음.
- 스페인 마드리드 내의 인구 약 20만의 알칼라 데 에나레스 시청, 의회를 방문. 마리아 아랑구렌 3 부시장의 설명으로 “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문화가 발달한 기초단체이며, 특히 성곽 안은 16세기 유적들이 존재하며 세르반테스 광장과 산토스 니로스광장 사이를 연결하는 약 7km 구간이 도보 힐링공간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함
- 알카라 데 에나레스 시(스페인)는 행정부와 의회가 통합형으로 선거에서 정당 투표율로 의원분포를 이루 있으며, 우리구(대립형)와는 다른형태로 운영되고 선거에서 주민들의 많은 표를 얻은 정당에서 단체장과 의회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이다. 또한 다른 정당의 정책과 예산반영 및 수립은 매월 3번 정도의 의원 전원 미팅으로 토론과 투표로 결정하며, 감사관에서 매월 보고서를 작성 하여, 감시 및 견제의 형태를 이룬다고 함.

○ 총평 및 구정 활용방안

- 행정부와 의회가 통합된 형태의 자치단체를 겪고 굉장히 흥미로웠음. 같이 회의를 진행한 마리아 아랑구렌, 제3 부시장은 문화부 시장으로 제2 부시장(경제) 다음 임. 알카라 데 에나레스 시청은 각 부서별로 직제 순에 따라 부시장 직이 있음.(서구청으로 예를 들면, 집권당 의원이 각 국의 국장 위에 부 구청장을 역임)
- 스페인 기초 시청 및 의회는 집권당에서 시장과 부시장을 맡고 의회도 독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일관되고 빠른 행정처리가 가능해 보이지만 의회 본연의 업무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은 우리보다 약해보임
- 지방자치제도가 달라, 스페인 기초 지자체의 통합형 제도를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부와 의회가 함께 행정 업무를 계획하고 처리하는 부분은 우리 구정에 접목할 수 있을 듯 함.
- 우리 서구도 의원의 구정질문, 5분발언,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안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적극적인 논의를 거친 성의있는 결과물로 구민을 위한 정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제안 해 본다.

## 주요 질의 및 답변

|     |   |
|-----|---|
| 질의1 | ○ 행정부와 의회가 통합형이라는게 어떤 의미인지                            |
| 답변) | ○ 선거를 통해 집권당이 결정되면, 집권당에서 시장과 부시장, 의회 책임자가 결정됨        |
| 질의2 | ○ 행정부와 의회가 통합형인데,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은 어떠한지               |
| 답변) | ○ 예산과 계획에 대해서 다른 당 의원들까지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견제와 감시를 진행함 |



## 4. 람블라 거리와 라 보케리아 시장 (김수영, 윤정민 의원)

○ 방문일시 : 2023. 4. 5.(수)

○ 주요내용 :

- 보케리아 시장은 스페인 3대 재래시장 중 하나로 1836년에 당초 수도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에 자리잡고 있음. 900개 정도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점포를 시청에서 상인들에게 10년동안 임대해 주고 특이 사항이 없으면 계속 연장이 됨.
- 수도원 건물에 자리잡은 시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핑장이 예술적이고 예쁜 모습의 시장으로 인식되어 관광객들이 찾는 필수 코스가 되어 있음.
- 바르셀로나 시에서도 10년전에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지중화 작업을 하여 시장이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줌, 시장 내 모든 물건 하역 작업은 지하에서만 이루어지며, 지상과 지하로 연결된 통로가 다수 존재하여, 지상에서는 손님들만 있는게 특이 사항임
- 역사가 있고, 예술 작품이 있으며, 깨끗하고 현대화 되어 있는 이러한 특성들과 더불어, 품질 좋은 다양한 먹거리와 식재료가 있어 시장을 방문하는 대다수가 관광객들로 바르셀로나를 대표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함
- 보행자 전용거리 람블라스 거리(Ramblas Street)  
고딕 지구, 보른 지구, 라발 지구, 까탈루냐 광장 등 유명 관광지들의 중심지 람블라스거리는 바르셀로나의 중심지이며, 콜럼버스 탑에서 까탈루냐 광장까지 1.3km의 전용 보행도로 양쪽에 카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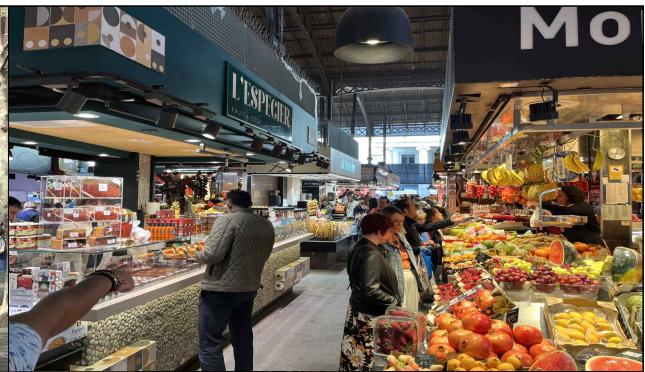
구경거리가 즐비함. 람블라스 거리에 행위예술가와 가우디 작품들이 곳곳에 있음 (가우디의 공모전 첫 출품작 가스 가로등, 후원자의 집 구엘저택, 후안 미로의 보도블록 작품 등)

○ 총평 및 구정 활용방안

- 보케리아 시장에 방문했을 당시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손님들로 인해 북적거렸음. 많은 손님들로 인해 시장 상인들도 분주하지만 친절하게 손님들을 응대하였고, 시장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느끼게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음.
- 보케리아 시장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 보았고 그 이유는 크게 '관광상품, 시설 현대화, 문화유적, 교통' 4가지로 파악됨
- 보케리아 시장은 1836년에 수도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건물과 모양이 달라 이 자체만으로 관광상품이 되었음, 역사적인 배경에 그치지 않고 바르셀로나 시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시설 현대화를 하여 우리나라 어떤 마트보다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보케리아 내부적인 요인을 넘어선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변 문화유적 요인이 있음. 바르셀로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우디 건축물을 관광하고 다음으로 방문하는 곳이 '구 시가지 문

화유적지' 입, 과거 건축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고딕지구에는 바르셀로나 대성당 등이 있어, 바르셀로나 옛 문화를 겪고 싶은 관광객들의 필수코스임, 고딕지구를 2시간 넘게 걸으며 관광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람블라스 거리를 지나 보케리아 시장으로 가게끔 연결 되어 있음

- 또한 관광명소가 있는 지역답게, 교통이 발전되어 있어 바르셀로나 어느 장소에서 출발하던지 쉽게 람블라스 거리에 들어올 수 있음.
- 위와 같은 4가지 성공요인을 우리 지역에 100년의 역사를 가진 양동시장에 접목하여야 함. 바르셀로나 구 시가지 고딕지구와 같은 '볼거리'가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변모하여야 양동시장에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양동시장은 특색 상품 부재, 낙후된 시설, 주변 관광상품과의 연계 부족 등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서구청에서 양동통맥축제를 통해 시장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관광객을 유치할 통한 시장활성화라는 축제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의 이용률 제고에는 도움이 되질 못하고 한시적 축제로만 마무리 될까 우려스러움. 이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양동시장을 광주의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시설 현대화, 교통발전 등 전반적인 개선의 방향 마련을 통한 시장 관광화를 모색해 봄



## 5. 성가족 성당, 구엘공원 등 문화재 (김형미, 안형주 의원)

○ 방문일시 : 2023. 4. 6.(목)

○ 주요내용

### -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성가족성당)

스페인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하고 직접 건축감독을 맡은 로마가톨릭교의 성당(聖堂) 건축물임.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성(聖) 가족'이라는 뜻으로, 예수와 마리아 그리고 요셉을 뜻함. 건축양식은 입체기하학에 바탕을 둔 네오고딕식이며 구조는 크게 3개의 파사드로 이루어짐. 가우디가 사망 전 완성된 파사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는 '탄생의 파사드'이며, 가우디가 직접 감독하여 완성했음. '수난의 파사드'는 1976년 완성됐고 '영광의 파사드'는 2002년 착공되어 현재 공사중임. 성당이 완공된다면, 첨탑의 가장 높은 곳인 성당의 가운데 예수를 상징하는 첨탑이 위치하게 되며 울름 대성당의 161.6m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될 것임

### - 구엘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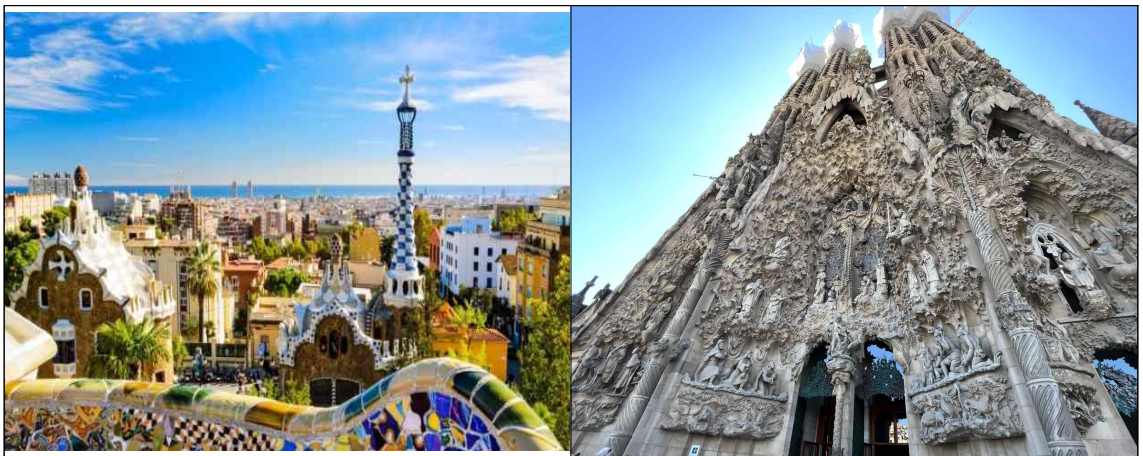
가우디 건축의 진수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돌을 쌓아올려 만든 울퉁불퉁한 기둥, 다리, 화려한 타일 문양 등이 어우러진 독특한 공원임. 공원의 중앙에는 광장이 있으며 광장의 모서리를 따라 타일로 장식된 곡선의 긴 벤치가 자리 잡고 있음. 이 벤치는 투박한 돌에 타일을 붙여 직선이 없이 곡선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임. 또한 모든 시설물에 타일을 이용해 표면을 처리하고 문양을 새기고 있다는 것과 울퉁불퉁한 돌을 이용한 기둥과 벽, 자유로운 곡선을 이용한 집 등 창의적인 디자인을 볼 수 있음.

## ○ 총평 및 구정 활용방안

### [총평]

-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과 구엘공원은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문화재로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입장 인원수를 제한하는 등 관리가 체계적이고 정돈되어 있음.
- 또한 성당은 1882년 착공 이후 141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건축 중으로 건축의 완성도에 심혈을 기울이는 건축 과정마저도 흥미를 유발시켜 지속적인 관광으로 이어짐.
- 현대의 기술로 성당 건축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으나, 성당 건축비 조달의 상당 부분이 관람비에 의존하고 있어 관광객의 유치는 건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
- 성당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첨탑의 높이는 172.5m로 도시의 최고 고도인 몬주의 언덕의 173m보다 0.5m 낮게 지어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했으며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의 어느 곳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설계함.
- 교외 언덕에 위치한 구엘공원은 ‘안토니 가우디’가 오랜 친구이자 후원자인 ‘구엘’을 위해 건축한 곳으로 이상적인 유토피아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원 도시로 설계하여 60호 이상의 전원 주택을 지어 화려한 도시로 만들 예정이었지만 자금 부족으로 실패한 부동산 계획임. 그러나 1922년 바르셀로나 시의회가 이 땅을 사들여 시영공원으로 탈바꿈시켰고, 현재는 수많은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며 그 효용면에서 전화위복됨.

- 바르셀로나 도시계획은 직교 형태의 도로망, 정사각형 블록, 블록 내부의 열린 공간, 각 블록의 모서리 부분을 잘라서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설계한 것이 인상적이었음.
- 가우디의 건축 및 디자인의 본질은 지역문화 중심주의로 자연적 경향 뿐 아니라 종교, 사상적 측면을 포함하는 '문화'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



[서구현황]

- 서구는 유형문화재 4곳, 문화재자료 4개 등 총 16개의 문화재가 지정돼있음. 특히 운천사, 병천사 등 불교와 광주대 교구청 브레디관 등 천주교 문화재가 주요 문화재로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또한 서구는 광주의 중심부에 있으며 금당산, 개금산, 송학산이 병풍처럼 둘러쌓여 있어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룸. 특히 터미널 등이 위치하여 교통의 중심지이며 신·구 도심과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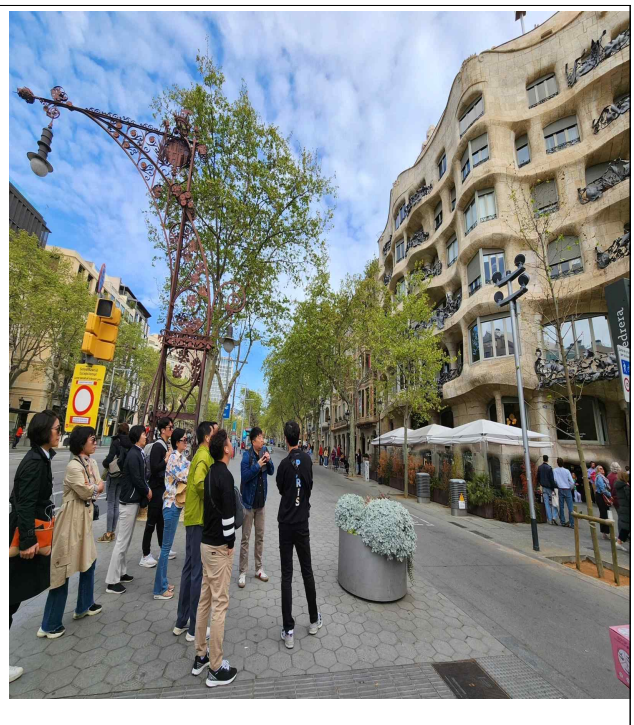
[제언]

- 문화재 관리 지역사회 공동체 활용

-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자치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
- 주민의 지역 커뮤니티와 참여 정책을 체계화해 주민자치 증진
- 공공시설의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 경제 활동 촉진

- 체계적인 도시계획

-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및 미관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도시 장래 수준을 예측하고 기본 공간구조와 사회경제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을 포괄한 발전방향 제시
- 건축 및 디자인의 다양성을 살펴보고 공간활용이 용이하도록 계획



## 6. 유럽 자전거 관련 정책 (의회사무국)

○ 방문일시 : 2023. 3. 31. ~ 4. 7.

○ 주요내용

- 프랑스 드골공항에 오후 늦게 도착했기에 바로 저녁을 먹고 라데팡스 근처에 있는 숙소로 향했다. 프랑스의 대표적 랜드마크가 저 멀리 보이고 센강을 지나 이동하는데 일행의 버스 옆으로 자전거가 쉽게 눈에 띄었다. 곳곳마다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판과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프랑스 파리에 3번째 방문이었지만, 이처럼 눈에 띄게 변화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프랑스 파리의 자전거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2018년부터 파리를 자전거의 수도로 만들기 위한 파리시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2015-2020년 기간중 자전거계획에 6,300만 유로를 투자하고 약 200km의 자전거 전용 도로와 10,000여개의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고, 2024년 파리 올림픽 전까지 개인 이동 수단 중 자전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프랑스 정부는 국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해 내년에 2억5천만유로(한화 약 3,42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2022년 발표했다. 예산의 규모도 놀랍지만, 한 해 동안 이토록 많은 예산을 국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배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다. 배정된 예산 가운데 80%인 2억유로(한화 약 2740억원)는 자전거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 및 정비에, 나머지 5000만유로(한화 약 685억원)는 자전거 정류장 등에 이용할 예정이다. 이 결정은 많은 단체들, 특히 자전거협회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도시 내 대기질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프랑스의 '첫 자전거 계획'은 2018년에 시작됐다. 이 계획 덕분에 자전거 구매율이 증가하고, 이용자수가 늘어 나는 등 지난 4년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 2027년까지 진행될 후속 자전거 계획은 다음의 세 가지 목표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 단거리 이동의 경우 자전거가 개인 승용차 이용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장거리 이동의 경우 대중교통과 함께 연계된 자전거 이용이 가능토록 한다. 둘째, 자전거를 시작으로 프랑스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남녀노소 지역불문, 모두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021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프랑스 내에서 통근거리가 5km 미만인 직장인의 비율은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 인구의 자전거 구매율은 기준년도보다 29%나 증가했다. 이를 통해, 자전거 도로 등 인프라구축이 잘 된다면 앞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파리의 자전거 전용 도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급격히 늘어났다고 한다. 사람이 붐비는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며 기존 차로에 임시 자전거 도로인 'coronapiste'를 추가하였다.
- 'coronapiste' 는 파리의 2050 탄소중립계획의 추진방향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파리는 기후변화를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18년 '2050 탄소중립계획(Paris, Anair of change toward carbon neutrality in 2050)'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50년 탄소중립도시 파리는 기후변화에 강한 주택과 자원순환 시설이 광장 근처에 있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승용차는 다니지 않으며,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편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녹지를

누릴 수 있는 녹색도시로 변화한 모습을 보여준다. 탄소중립도시 파리의 추진방향을 보여주는 특징 중 공간관리적 측면에서 자전거 정책이 잘 드러난다. 공간관리적 측면에서 파리는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15분 도시를 제시하였다. 15분 도시는 집에서부터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15분 이내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무실, 탁아소, 병원, 도서관, 상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근접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15분 도시에서 도로는 자동차를 줄이고 그린인프라를 갖춘, 노인과 어린이 등 시민이 걷는 공간이다. 이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탄소제로 교통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15분 도시 개념을 파리 미니메스 지구(Minimes Barracks)에 적용하였는데, 기존 건물을 공영주택과 보육원, 식당, 사무실, 클리닉 등으로 재건축하고 주차장은 공원으로 리모델링하였다. 5분 거리에 있는 바스티유 광장등은 교통 중심지에서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재정비하고 자전거 고속도로(coronapiste)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15분 도시 개념은 C40에서 도시계획정책으로 채택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등 많은 국가와 도시에서 적용하고 있다.

- 안전수칙 : 파리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몇 가지 있다. 우선, 프랑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8세 미만 어린이들은 보행자 도로에서도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자전거 전용 도로와 관련해, 안내 표지판이 동그라미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네모일 경우에는 이를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 차도 이용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 수칙을 모두 지켜야 하며, 자전거 전용 도로가 따로 있을 경우 자전거 도

로를 이용해야 한다. 버스 전용 도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으나 예외도 있다. 자전거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지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표지판과 차도에 그려진 그림을 잘 확인해야 한다.

- 파리의 자전거 관광 : 파리를 포함해 프랑스가 보유한 자전거 전용 도로 및 녹색도로(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을 위한 도로)의 규모는 총 22,800km에 달하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프랑스 전국과 이웃 국가까지 여행하는 것이 가능해 최근 들어 다양한 자전거 코스를 이용한 자전거 투어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의 연간 자전거 관광객 수는 900만 명으로, 외국인 및 국내 자전거 관광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프랑스의 '자전거도로' 중 수도인 파리를 지나는 도로는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자전거 도로로는 1995년부터 유럽 사이클리스트 연합이 진행해온 프로젝트로 유럽 각국(스페인, 벨기에,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을 연결하는 유로벨로, 파리와 몽생미셸을 연결하는 벨로세니, 파리를 시점으로 중간지점에서 페리션을 이용해 런던까지 이어지는 아브뉴 베르뜨, 세느 강 주변 도로부터 항구도시 르아브르까지 연결되는 센아벨로, 프라하까지 이어지는 비아 카롤리나등이 있다. 더불어 대도시에 인접한 일부 외곽도시는 물론 시골 지방에도 자전거 무인 대여소를 설치, 시민들의 공용 자전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지난 프로젝트때와 마찬가지로 지역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자전거 도로의 개발 및 정비 또한 촉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프랑스정부는 개인의 자전거 구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

극 지원중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더욱 늘려 파리 시내 전체와 외각까지, 일드프랑스 내에서 자전거로 100%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팬데믹 기간 동안 탄생한 'coronapiste'를 영구화함과 동시에 모든 일방통행 차도에 양방통행 자전거 도로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교차로와 시내 진입구간과 같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에 안전 장치를 더욱 마련하고, 자전거와 대중교통에 우선통행권을 주는 신호등 시스템도 연구 중이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안전 캠페인과 교통수칙 교육을 늘린다. 예산 중 일부는 자전거 도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내 곳곳에 안전한 자전거 주차장을 늘리는 데에 쓰인다. 또한 파리 시청은 자전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초등학생 대상 자전거 수업을 일반화 해 모든 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광주광역시의 자전거 정책

- 승용차가 다니기 편한 광주광역시의 도로 체계를 개편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란 인도와 도로를 이어 만든 현재의 자전거 도로와 달리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광주의 수송 분담률은 승용차 49.1%, 버스 26.2%, 택시13.7%, 지하철 3.3%, 기타 7.7% 등이다. 이 가운데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기타에 포함되며 약 2%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유럽 주요

도시에선 10~60%에 달하지만, 광주는 20년째 2%대다. 지금의 도로 구조에서 본다면 광주광역시는 자전거 타기 편한 도시다. 다만 자전거도 '차마'로 분류되니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차선으로 다녀도 된다는 조건에서 그렇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 살펴보듯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교통·수송 부문서 가장 우선되는 도심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겨우 2%(2020년 통계청 녹색생활실태조사) 조금 안되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승용차는 70%대에 육박한다. 광주 천·영산강·풍영정천·황룡강·서구 서창에서 대촌까지(서창 입구에서 서광주역을 거쳐 농산물센터와 전평제 그리고 대촌까지 이어지는), 북구 영락공원 입구(용전사거리에서 시작하는), 첨단지구와 수완지구 등에 일부 구간이 있다. 실제 이 길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광주시민은 몇 명이나 될까? 자전거를 교통의 수단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대다수는 '5km이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앞서 언급한 어딘가는 진입하는 입구까지만 해도 족히 5km는 넘는다.

## ○ 정책제언

- 친환경 미래교통체계를 앞당겨 생태도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기후위기 및 환경선도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회적 빈곤층, 장애인, 여성,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이동권 확보에 최적화된 교통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 통근·통학·쇼핑·업무·여가 등 다양한 목적의 통행을 염두에 두고 보행과 자전거가 연계된 계획 및 시설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

보행과 자전거 통행로를 차량과 동등한 위치에서 계획해 도로가 상호 경쟁, 혹은 보완적인 역할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

- 도보 및 자전거 중심의 관광객 증대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도시민의 건강권 실현 방안을 위한 교통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2045 탄소 중립 선언 도시 이미지에 더해 이젠 기후 위기의 시대에 맞게 자가용 대체수단의 모범도시(교통) 위상을 구축해야 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통합 체계 구축을 통한 '차 없는 거리 또는 마을'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고경애의원 소감문

- 작년 7월 제9대 서구의회가 개원하고 제9대 전반기 의장을 맡아 그 어느때보다 막중한 책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다. 의장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와 의원들간 격의없는 소통과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였다. 그에 일환으로 제 9대 의원들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게 국외연수를 추진하게 되었다. 물론 서구의회를 책임지는 의장으로서 주위에서 보는 우려와 시선이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서구의 의정활동에 접목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계획단계에서부터 의원 스스로가 주제와 방향을 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파리의 도심재생현장, 도심옥상형 유리온실 스페인 알카라 데 에나레스 시의회, 라 보케리아시장 전통시장 4군데 공식연수 방문일정과 함께 서구의회 공무국외연수의 길에 올랐다.
- 국외연수에 참여한 의원들이 자신들의 의정활동에 접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질문이 이어지고, 너나할 것없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연수일정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최대한 의원 개개인의 시간을 보장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국외연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 본의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서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파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스페인 톨레도 지역일대를 돌면서 새삼 문화의 힘을 느꼈다. 현대사회가 역사를 지닌 문화를 향유하고 보존하면서 그 가치를 드높이고 활용하는 모습에 감탄을 자아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순응하고 적응하며 살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에 우리의 시민 문화도 한 층 더 성숙해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 우리 서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역사를 잘 가꾸고 활용한다면 우리 서구도 프랑스 파리가 될수도, 스페인 톨레도가 될수 있을거란 바람을 가져본다.

## 2 김수영의원 소감문

선진 도시의 분야별 우수 사례 및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자연재해, 환경문제, 도시개발, 구도심과 신도심의 정책이나 문화.관광 문제등 다양한 관심을 갖고 프랑스와 스페인 연수를 다녀왔다. 연수기간 동안 현지 가이드와 방문지 안내자의 설명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고자 바짝 따라 다닌 기억이 새록새록 하다 연수를 하면서 기억에 남은 몇 곳을 소감문으로 작성 하고자 한다.

### - 에펠탑

세계적인 명소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세계박람회를 위해 세워진 구조물로 에펠이라는 건축가의 설계로 세워진 건축물은 철근을 조립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한다. 그냥 보기로는 철근 덩어리로 보일 수 있지만 수많은 철근을 일일이 조립을 해서 완성된 작품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내게 했다.

### - 라데팡스

1980년대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1950년부터 오드센의 일부를 신도시 건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규제를 완화 하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초고층 건물을 세워 개발 공사를 마무리 했다고 한다. 대지 46만평에 첨단 시설로 된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500개 정도의 회사.18만명의 셀러리맨, 3800개의 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이 도시가 바로 유럽에서 비즈니스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라데팡스라고 한다. 특히 이 도시는 녹색지대가 3h, 사람

들이 걸어다니는 정원이 31h 정도이고 예술관이나 박물관이 60개 이상이며 먹거리, 문화, 즐거움을 모두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라고 한다. 또한 런던, 브르셀, 파리더블 공항 등 유럽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어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지하철 일반 도로 등은 지하로 배치해 도심 혼잡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며 특히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건물마다 Co2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유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지역도 상무지구, 풍암지구가 들어서 도심을 이루고 있다, 라데팡스에 비교 할 수도 없는 작은 도시이지만 선진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에 비하면 너무나 고민하지 않는 도시 개발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도시개발과 차이는 있지만 우리 서구도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한 곳이 있다. 구도심 지역인 양동과 농성동 지역에 도시 개발보다는 도시재생을 선택한 이유가 개발을 하게 되면 높은 분양가에 현재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쫓겨 나가는 문제가 있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 할 수도 있어서라고는 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은 그 대로이고 처음 도입한 사업이라 여러 가지 시행 착오가 발생하기도 했다,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개발이나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몽마르트 언덕의 시 한편을 자작해 본다.

몽마르트 언덕

김수영

파리의 가장 높은 곳  
몽마르트 언덕을  
뚜벅뚜벅 오르다  
고개를 드니  
샤크레퀘트 대성당이  
나를 품는다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찾았던  
예술가들의 절규는  
붓 끝에 힘 실어  
영혼을 담아내고

샤크레퀘트 대성당의  
종소리  
가난한 나의  
마음을 울린다.

#### - 알칼라 데 에나레스 의회

돈키호테의 소설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생가가 있는 알칼라 데 에나레스 의회를 방문하여 문화.관광 담당자인 3번째 부시장 면담을 통해 문화,관광관련 사업과 정책 그리고 의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알칼라 데 에나레스는 스페인 중부 마드리드주에 있는 인구 20만의 작은 도시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된지 28년이나 되었다고 한다. 고대 유적이 두드러지고 역사적 중심지로서 문화.관광 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고, 복지.기후환경 관련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 일행이 버스에서 내려 의회를 방문하기 위해 한참을 도보로 걸었을때도 차가 주차되어 있거나 차량 통행이 없었다. 그 이유가 바로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으로 차를 외부에 세워 놓고 걸어 들어와 일을 본다고 했고 주민들도 그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 - 가우디 성당

바르셀로나 하면 관광이든 연수든 누구나 꼭 한번쯤 들려보고 싶은 도시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천재적인 건축가 가우디의 마지막 작품인 성가족성당(사그라다파밀리아) 있기 때문이다. 성가족 성당은 1883년 자신이 지은 죄를 참회하는 신자들의 모금으로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1926년 가우디가 사망하고 그 이후 1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공 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로 건축양식의 섬세함과 역사적 가치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감명을 받았고 가이드 설명에 의하면 2026년정도에 완공 될 예정이라고 했었다.

- 라보케리아 시장

바로셀로나 전통시장 라보케리아 연수를 다녀온 이후 우리구의 100년이상 된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상인회 주주총회와 복개상가 주주총회를 다녀왔다. 라보케리아 시장에 대해 시설 현대화 사업의 잘된 부분과 90%이상의 관광객이 하루에 수십만명이 다녀 간다는 활성화 부분에 대해 인사말을 통해 전달 하였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하는 시장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시장 상인들 그리고 지자체 의회등이 다 같이 고민을 하고 노력해 가자는 제안을 했었다.

- 이번 프랑스와 스페인 연수를 통해서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과연 유럽 선진 국가의 다양한 도시개발.건축.역사.문화.풍습.기후변화 대응 등을 살펴보고 정치의 싹틔줄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원으로써 선진국의 어떤 정책을 반영시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하고 역사, 문화, 시민들의 의식 수준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이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과도 연계등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 기구으로써 좀더 전문을 넓히고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보고 느끼고 배우고 감동을 받았다면 지방의회 의원으로써 역할과 기능을 더 알차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번 연수는 유익한 연수였다고 자부해본다

### 3 백종한의원 소감문

[연수 기간 중 의미있게 느낀 어린이 놀이터 안전확보 시설과 유지·관리에 대해 서술하고자 함]

#### 1. 프랑스 어린이 놀이터의 배려 :

- 1) 놀이터 전체에 안전울타리(펜스)가 설치되어 거동이상자 및 동물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 공간 안에서도 놀이기구를 연령별로 달리 배치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울타리와 의자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그 또래에서 안전하고 평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2) 바닥면이 흙이나 모래가 아닌 폭신한 탄성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놀이터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에서 놀이터의 청결과 시설물 유지가 잘되고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음.
- 3) 출입문 입구에는 서고와 소통함이 설치되어 놀이터의 이용자 및 보호자들에게 독서와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 뛰어나

#### 2. 제안사항

- 1) 광주 서구의 어린이 놀이터는 어떤가를 보면 어린이공원의 놀이터도 주위와 전혀 구분되는 개념의 안전울타리가 설치된 곳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령별로 구분된 놀이기구 배치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관계로 거동이상자와 동물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언동이 가감 없이 전달되게 되어있어 아이들에게 정서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 2) 우리 서구의 어린이 놀이터 바닥면은 대부분이 모래 내지는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고, 아무런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한 동물들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데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바 이 또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내용이다. 2023. 4. 19.자 언론보도와 같이 공원에 설치된 거꾸리를 타던 시민이 바닥에 떨어져 다친 사고에서 피해자가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부는 피해방지 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는바,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판결이라 하겠다.
  
- 3) 프랑스의 어린이 놀이터는 입구부터 출입문이 설치되어 사람 및 동물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서구도 어린이 놀이터 등에 서고와 소통함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복지 충족과 직접 소통을 피하여 대의민주주의의 부족함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

## 4 오광록의원 소감문

### [기록과 보존의 도시]

- 이번 파리 연수를 통해 느낀 것을 한 키워드로 말하자면 기록과 보존이다. 파리를 수식하는 말로 낭만의 도시, 사랑의 도시, 빛의 도시 파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의원은 기록과 보존의 도시라고 생각한다. 과거 고대에 파리의 기원이 된 시떼 섬에는 예전 왕조의 성벽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으며, 고딕 건축물의 최고 걸작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800년이 넘게 한 장소에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파리를 가로지르는 센강은 옛 모습을 보존함과 동시에 꾸준한 개발을 통해 파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파리 구 시가지에는 시떼섬과 마찬가지로 옛 양식을 간직한 건축물들이 아직도 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옛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파리의 선조를 덕에 무수히 많은 현대인들이 과거로 여행하기 위해 파리를 방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의 파리인들은 과거 선조들 덕분에 문화 관광으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인지 현대의 파리인들도 현존하는 문화유산인 중세 건축물의 보존을 중요시하며 개인 집이지만 디자인을 조금이라도 변경할 시, 관할 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또한 과거를 보존하지만 도시 개발 같은 경우는 먼 미래를 생각해서 도로 및 하수도를 계획한다. 라데팡스와 같은 경우에서도 1950년대에 지어지기 시작한 도시이지만 모든 차량이 지하로 다니는 등 설계되어 현대인들이 지금 봐도 굉장히 우수하게 설계되어 있다. 옛 것을 보존하면서 발전 및 개발 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이번 파리 연수를 통해서 배웠고, 앞으로 기록, 보전이 가미된 발전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면서 구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한다.

## 5 전승일의원 소감문

- 이번 국외연수는 계획수립부터 결과보고서 제출까지 연수 전 과정을 의원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었고 그만큼 성과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활절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4곳의 공식 방문을 계획대로 완수하였고 특히 스페인의 알칼라데 에나레스 시의회 방문 시에는 이런 휴가철에 어떻게 공식 일정을 잡을 수 있었는지 현지 가이드가 의아해할 정도로 이번 연수 일정은 알차게 구성하였습니다.
- 프랑스 라데팡스 개발청 공식 방문 시 점심 식사 시간까지 할애하며 우리에게 훌륭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심도 있는 설명을 성심껏 해준 라데팡스 개발청 기관 담당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광주 서구의회에서도 라데팡스 개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기후위기대응 활동에 동참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스페인 바르셀로나 도심에서는 인도에 질서정연하게 비치된 플렌트 화분을 보자마자 광주 서구에 벤치마킹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화분 상단에는 물 배수시설이, 하단에는 물 저장 시설이 각각 설치되어 있어 화단 관리자의 수고로움 없이도 물 공급 펌프 장치로 적시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십 년을 바라보고 제대로 된 품목에 합당한 예산을 집행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구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1836년부터 이어진 바르셀로나 라보케리아 시장에서는 100년 전통의 양동시장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시장 상점의 매대가 허리 위와 눈높이 사이에 있어 굳이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상품이 잘 보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판매 상점에는 물과 얼음이 녹아도 보행로에 물이 생기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 특유의 생선 비린내 등의 악취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균일한 규격의 쇼윈도까지 더해져 백화점 식품관 못지않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사소한 차이가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배움을 다시금 되새기며 호남 최대 규모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 6 윤정민의원 소감문

- 온 나라가 기후위기와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할 기후위기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각종 전염병과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번 의정연수는 이 두가지 사안을 풀어내기 위한 의정활동에 선진 사례 견학을 통해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성공적인 도시계획으로 보행안전·교통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라데팡스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면서 도로위 교통섬의 위험성, 자전거 도로 미비, 주차문제 등에 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 1958년부터 계획된 라데팡스는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면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신도시 개발로 꼽힌다. 사람과 경제를 살리는 도시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배웠다.
- 파리의 옥상형 도심 유리온실 농장 방문은 쓸모없고 폐쇄된 공간이라 여겨졌던 옥상정원. 이곳을 주말농장이나 정원등으로 꾸며 회색도시에 지쳐있는 도시인들에게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과 함께 광주 도시농업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환경을 살리기 위해 지역내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인 푸드플랜과 연계하는 종합계획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 스페인의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하원은 전체 비례대표제로 선출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 결정을 주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으로 논쟁이 뜨겁다. 선거제도 개편에 국민의 한표한표가 사장되지 않는 스페인의 선거제도를 참고할 만 하겠다.
-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한 도시계획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가는 도시들을 보면서 사람과 자연과 삶이 공존하는 가치있는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많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이었다. 특히 지역의 단점까지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조성한 구엘공원을 보면서 현재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앙공원 조성하는데 벤치마킹 할 과정이 많았다.
- 이번 연수는 '전통, 도시계획, 기후위기대응, 시민, 연계'의 단어로 함축되어졌다. 정책의 개발과 시스템 운영 그리고 사람안에서 실현되어져 온 경이로운 결과물 등 연수를 통한 경험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해야겠다.

## 7 임성화의원 소감문

### [百聞不如一見]

- “백문이 불여일견”,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연수에 임하기 전에 ‘무엇을 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다. 막연히 가장 먼저 생각나는 도시, ‘프랑스 파리’였다.
-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기후 체제로 2015년 12월 12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장소가 바로 파리였기 때문이다.
- 파리기후협약의 주요 골자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이다. 그 후 8년이 지난 지금,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농장을 갖추고 있다는 ‘파리’는 기후위기에 어떻게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그 현장이 궁금했다.
-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농장을 선도적으로 운영, 생산성이 높으면서도 지속가능한 농업의 모델을 만들어가 있었다. 특별히 재배된 농산물은 농장 근처 호텔이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업, 레스토랑에 공급되며, 일반 소비자들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유통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옥상에 재배된 작물을 통해 도시의 열섬효과는 물론, 사람들에게 로컬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직접 확인했다.
-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김대중컨벤션 센터가 있으나 옥상 형태가 상이해 적용에 한계가 있다. 대형 건물 옥상이 부재한 서구의 상황을 고려, 도심 속 가로변 띠녹지 화단 조성,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

한 텃밭 나눔, 마을 공동체 정원이 필요하다. 단순히 꽃과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마을의 스토리를 담아 주민 스스로가 기획한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조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구체적으로 지역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도심 속 오아시스로 서구 18개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공공 어린이집, 광장 등 지역의 특성과 주민 맞춤형 텃밭상자 분양을 통해 특색있는 광주 서구형 녹화사업인 <함께정원>프로젝트를 정책적으로 함께 적용해볼 생각이 다.
- 또 광주 서구의 경우, 상무, 금호지구로 대표되는 신도심과 구도심이 융합된 도시로 향후 군공항 이전 등으로 일부 새로운 개발이 예상된다. 파리 근교, 대표적인 비즈니스 특구인 '라데팡스' 개발청 방문과 면담을 통해 향후 광주 서구의 미래 도시 계획 밑그림을 선행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
- 광주는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로 대표되는 문화예술 도시이다. 하지만 그에 걸맞는 문화예술의 콘텐츠는 풍부하지 못하다.
- 세계적인 문화도시인 '스페인'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즐비했다. 접목시키고 벤치마킹할 것이 많다는 뜻이다.
-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건축물과 공원 등이 그 중 으뜸이다. 세계적인 대표적인 건축물로 손꼽히는 것이 안토니 가우디가 짓기 시작한 성가족(Saint Family) 성당이다. 모든 건축물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답아야 한다'고 믿었던 가우디는 성가족 성당 외에도 다양한 건축물에 그의 생각을 반영했다. 특색이 있으니 매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 광주 서구 경우도 양동 발산마을, 농성 벚꽃마을 등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이다.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쇠락한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활력을 불어넣고, 쇠락한 지역이 다시금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쇠락한 지역을 다시 활동적인 지역으로 재생(Revitalization)시키는 측면에서 서구 도시재생사업이 마을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특성을 잘 담고 있는가 염려스럽다. “진실이 없으면 예술은 없다.”고 가우디가 이야기 했다. 내가 본 프랑스와 스페인의 모든 건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개발되는 예술이었다면, 서구에서 담아내야 하는 진실은 무엇이어야 할까.

- 스페인과 프랑스 도시의 문화는 뜬금없이 떨어진 것이 아니다.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연결되어 온 그 무엇이 있다. 역사란 ‘과거와 오늘의 끈임없는 대화’라고 했는데, 과거로부터 무엇을 지켜낼 것인지, 무엇을 혁신할 것인지 정치와 리더의 몫이다. 어떤 리더, 어떤 정치인이 어떤 철학을 갖느냐에 따라 도시의 10년, 100년, 1,000년은 확연히 달라진다.

### “백견이 불여일행”

- 연수를 통해 새롭게 깨닫고, 느낀 점들이 많다. 견학을 통해 배운 도시계획, 문화정책, 재래시장 활로 모색, 의회 운영 방향 등을 입법과 정책제안으로 주민들 삶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아도 실천해보겠다. 작은 하나의 움직임이 ‘살고싶은 서구’라는 큰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 8 안형주의원 소감문

###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파리]

- 파리에 도착한 첫 느낌은 “응장함”이었다. 아시아권에서 보던 건축 물과는 다르게 모든 건축물이 화려하고 응장하였으며 프랑스 정부에서도 전통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역사적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대적이고 창조적인 신규 건축물을 조성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 연수의 첫 번째 방문지는 라데팡스 도시개발청을 방문하였다. 도시개발청에선 복합개발도시의 탄생과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잘 계획된 도시계획정책이 지역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서구 또한 구도심과 신도심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규칙적인 개발로 지역 양극화가 심한 상태이다. 서구도 중장기 도시개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상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광주의 도시개발 발전계획도 수립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 두 번째 방문지는 도심 옥상형 유리온실 농장(Nature Urbaine)이었다. 유휴공간인 옥상을 활용하여 친환경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곳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수확하여 그 지역 로컬식당에 공급되고 일반 소비자들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현재 4,200평의 규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당장 발생하는 매출보다 환경과 교육적 활용 가치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회사가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 [태양의 도시 스페인 ]

- 스페인의 첫 번째 방문지는 알카라 데 에나레스 시의회였다. 시의회를 방문하여 스페인의 자치구 시스템과 선거제도를 경험하였다. 지방자치제도가 달라 대한민국의 자치제도에 도입하는 부분은 어렵지만, 행정부와 의회가 행정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 같은 방향으로 협치하는 모습은 지향해야 할 문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두 번째 방문지는 람블라 스트리트와 라 보케리아 전통시장이다. 라 보케리아 전통시장은 스페인 3대 재래시장 중 하나이며 900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전통시장과 다르게 물건 하역 작업은 지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지상엔 손님과 상인만 존재하므로 전통시장임에도 청결하고 정돈된 느낌이 인상 깊었다. 또한 시장 앞 람블라 스트리트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조성되었으며 1.3km의 전용도로 양쪽은 볼거리와 먹거리가 넘쳐났으며 거리의 곳곳에 많은 행위예술가의 공연과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들 또한 전시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 세 번째 방문지는 가우디 성당과 구엘공원이다. 바르셀로나의 자연과 어우러진 가우디 건축물은 자연에서와 같은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어우러지는 건축디자인하겠다는 가우디의 철학이 고스란히 표현되었다. 광주도 전형화된 현대식 건축디자인만 고집하지 않고 광주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자원을 접목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일반화된 도시 이미지보단 자연과 어우러지고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은 도시, 방문하기 편하고 안정된 느낌을 제공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 9 김형미의원 소감문

### [바둑판 도시와 기괴한 곡선]

- "가우디는 바그너와 세잔 및 그 외의 예술가과는 반대로, 바르셀로나에서 혼자 혁명을 시작했다. 이리하여 우리는 지도 위에 카탈루냐의 위치를 표시하듯 미술사에서도 카탈루냐 지방의 위치를 표시함으로서, 다른 국가와 다른 분야의 천재들이 했던 모든 것, 앞서간 예술가들이 했던 모든 노력을 단 하나의 재능으로 일궈낸 가우디를 발견하게 된다." 푸란스시코 푸욘 -
- 아주 오래전부터 가우디 건축물을 보고 싶었다. 도시의 역사와 스토리를 간직한 건축물이야말로 그 도시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오래된 건물이나 새로 지은 건물 또는 독특한 건축물들을 꼭 방문하곤 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가우디 건축물을 오래전부터 보고 싶었다. 실제로 마주한 가우디 건축물은 독특한 건물 외벽, 기괴한 곡선, 화려한 실내 디자인과 장식조각 등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경이로웠다. 특히 가우디가 죽기 전까지 40년 동안 몰두했고 아직까지도 짓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건축가의 창의력과 열정, 종교적 신념까지 결합해 독특하고 경이로운 건축물로 탄생했다. 구엘공원, 카사밀라 등 자신만의 양식을 만들고 아름다운 디자인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구조로 건축물의 기능도 고려해서 설계됐다는 점도 경이로웠다. 이 모든 점이 단순히 건축가로만 평가받지 않고 예술가로서도 평가를 받는 이유이다.

- 실제 가서 본 바르셀로나는 가우디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 흥미로웠다. 동일한 모양과 크기의 블록으로 이루어진 격자 구조의 도시, 둥근 블록 코너, 도시를 관통하는 큰 도로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계획 또한 경이로웠다. 또한 도시의 시작인 로마시대부터 중세시대, 현재의 계획도시까지 모두 다 볼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특히 이 모든 도시계획은 사그리다 파밀리아 등 가우디의 건축물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다시 가고 싶은 도시, 계속 머물고 싶은 도시, 바르셀로나는 정말 감동으로 기억에 남았다.

“바르셀로나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 10 오미섭의원 소감문

- 프랑스 라데팡스 개발청(EPAD)의 다기능 복합 개발 주요사업 현황과 도시의 역할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발청 홍보팀장의 브리핑을 듣고 궁금한점에 대해 질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 구도심 지역의 역사적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대적이고 창조적인 신규 건축물 조성이 잘되어 있어 역사의 흐름과 현재가 어루러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 우리구도 새로운 지역을 계획 및 개발 할 때 기존 유적과 문화재 등을 보호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머물고 싶은 도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기후위기 관련하여 친환경도시와의 연관성을 고민하고 향후 사업에 자전거 타기 좋은도시 만들기, 도심 근방 녹지대 조성을 위한 계획,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시민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를 상징할수 있는 창의적인 건축물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스페인 마드리드 부시장(마리아 아랑구렌)으로부터 의회 및 의원의 역할에 대한 소개시간에는, 나라는 다르지만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동질감과 공감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 특히 복지, 기후부분을 대표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차없는 도로 만들기(인도만들기)를 위해 애쓰는 사회당을 보면서 그러한 정책들이 잘 실현되기를 응원하였습니다.
- 실제로 차없는 거리를 걸으면서 우리구도 이러한 정책을 펴면 좋을 거란 생각과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 11 김군호의원 소감문

### □ 총론

광주서구의 랜드마크를 만들자 !  
한옥마을에 한옥을 더하자 !  
영산강 그리고 풍암호수를 활용하자 !

### □ 개요

프랑스는 세계인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세계 제1위의 관광국이자 소프트파워 문화 최광국의 문화 예술의 나라이다.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도시는 파리, 파리의 상징물은 당연 에펠탑 또는 개선문 일 것이다. 이러한 자원들은 현재까지도 보존이 잘 되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수많은 외화를 벌고 있다.

- 오세훈 서울 시장은 한강 석양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상암에서 여의도, 용산, 노들섬, 반포, 뚝섬, 잠실까지 강남·북을 지그재그로 연결하는 일명 '선셋 한강라인'에 세계인이 주목하는 석양 명소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인데 '서울링'으로 불리는 대관람차 건설을 추진중이다. 그렇다면, 광주 서구를 위한 발전 방향과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
- 첫째, 광주 하면 에펠탑처럼 떠오르는 조형물이 있던가? 아직은 없다. 그래서 광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광주 서구에 설치하는 것이다. 적은 예산을 들여 형식적인 조형물을 짓는 조형물에 그치지 말고, 영산강 물줄기와 역사 축제의 장, 아늑한 들녘에 석양이 일품인 서창들관에 대형의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 둘째, 프랑스 파리의 도심을 거닐면, 건물의 통일성이 엿보인다. 대부분의 건축물은 고딕 양식으로써, 백년 전부터 설계해온 도시계획에

의해 설계되어오고 건축되어 오고 있다. 도시의 건축물들이 모이고 모여 대단한 조화를 이룬다. 광주 서구에는 한국의 멋을 위한 한옥 마을이 있지만, 서구만의 법률 제정을 통해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한옥 건축물만 짓게 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만 하다는 생각이다.

- 셋째, 프랑스 파리에 세느강이 흐른다. 도심 주변 경관을 이용한 세느강의 유람선 투어는 지리적 및 지형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한 귀한 자원임을 더욱 부각시키기 충분했다. 광주 서구에는 영산강 줄기를 따라 광주천과 서창천이 흐른다. 이곳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수 많은 역사들과 들판이 장관을 이룬다. 여기에 일부 구간을 담수 시설을 갖추어 나룻배를 운행하게 하고 보트 투어를 통해 강가의 역사와 각종 식물, 생물 그리고 생태를 함께 체험하는 것, 석양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하천 정비를 하는 것이다. 과거 서창천 고향의 길 사업 등의 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이러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실시 용역 설계를 했더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비 사업이 예정된 구간이 있더라면 시도해 볼 만 하다.
- 또한, 서구 팔경 중 3경에 해당하는 풍암호수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은 중앙공원 개발이 예정된 곳이라서 각종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온다. 여기에 더해 풍암 호수를 쉼터로써의 경관 호수로서의 가치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과 어울릴 다양한 세트와 조형물등을 설치하여 문화 콘텐츠(영화 촬영지) 제작 장소로써의 기능이 함께하는 공간, 오리배를 타고 놀 수 있고, 누워서 책을 읽거나 1년 365일 끊임없는 콘텐츠가 가득한 행사가 열릴 수 있는 축제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꿈꾸어 본다.
- [결론] 소감문을 작성하다 보니, 또 다른 숙제를 남기는 소감문이 된 듯 하다.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행동하면 꿈을 이룬다”라는 명언이 생각난다.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하도록 지역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 보자.